



'한국전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의 강연을 듣는 미군 장병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미군들도 기억하는 6·25 전쟁의 교훈

독일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다. 토고전과 프랑스전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행진은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붉은 악마들의 함성으로 그 절정을 치닫고 있다.

방송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월드컵 관련 뉴스와 이야기가 무성하다. 그래서 ‘국가가 당면한 정치·경제·외교·안보 현안들이 왠지 뒷전인 느낌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3일 제임스 와이즈 캡 주한 미 해군사령관과 미 해군 장병 60여 명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백선엽 장군을 초빙해 ‘6·25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From Busan to Panmunjum’이라는 책으로 미군들에게는 이미 ‘한국전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알려진 그에게서 생생한 전투 경험을 듣기 위해서다.

올해 86세인 백장군은 노쇠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강연을 했다. 전쟁 당시의 국내외 상황과 전투 양상, 그리고 목숨을 건 한미 장병의 전우애를 설명하는 그를 바라보는

미군들의 눈빛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백장군의 강연이 끝나자 모든 미군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백장군은 작고 멀리는 목소리로 “조국과 가족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땀흘리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계속 지켜주기 바란다”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강대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가다 보면 ‘정숙’이라는 풋말이 시선을 끈다. 국난의 시기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애국 선열들의 피와 외침의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나는 한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이 시기에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발포가 남북한 교전으로 이어지고, 이 전투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감정이 북한의 불법 침략을 온몸으로 막

아내다 숨진 애국 장병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민적 열망인 월드컵 감동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은 분단 국의 오명이 아직 남아 있고, 북한의 적대 행위와 전쟁 위협이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은 지금, 우리가 마냥 흥분된 감정만을 안고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현재를 만든 출발점이자 교훈의 산실이다. 빼 아픈 수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면 나태해진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담금질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육군소령 이영우
한미연합군사령부